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또 다시 가을

곧 나뭇잎 붉어지고 하늘은 깊어질 텐데. 그리운 것이 기어이 문을 열게 하고, 뼈아픈 후회가 기어이 하늘을 보게 한다. 공부는 늘 책을 이기지 못하고, 번민은 늘 인생을 앞서지 못하나니. 방 안에 쌓인 책들을 어찌할 것이며, 문 밖에 닥친 계절은 또 어찌할 것인가. 인생은 짧건만 날은 길고, 문 밖엔 또 다시 가을이 와 있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나쁜 말 (上)

판다곰은 왜 거짓말을 할까

도망 다니기 시작한지 1년 만에 외삼촌은 판다곰이 되었다.

점점 살이 쪄서 배가 불룩해지고 얼굴이 둥그레지더니 손가락 발가락까지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 햇빛을 보지 못한 피부는 허옇게 떴고, 눈 주변이 검어졌다. 외삼촌은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뒹굴며 지냈다. 서 있기보다는 앉아 있었고, 앉아 있기보다는 누워 지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노트북으로 게임을 할 때도, 심지어 라면을 먹을 때도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먹었다.

밥보다는 빵, 빵보다는 면이라며 아침으로 라면을 먹고, 점심으로 빵, 저녁으로 짬뽕이나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었다. 어쩌면 외삼촌은 진짜 판다가 되어 온종일 대나무 잎을 씹어 먹게 될 지도 모른다고 은성이는 생각했다.

외삼촌이 끙, 하고 신음을 흘리며 몸을 일으켰다. 일어난 길에 냄비째 라면 국물을 들이켜고, 소매로 입가를 쓱 닦고는 길게 트림을 했다. 외삼촌이 직립보행을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 똥을 싸러 갈 때뿐이었다.

"똥 싸러 갈 거야?"

"아니."

"빨리 싸. 나 씻고 나가 봐야 해."

외삼촌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룩뒤룩한 엉덩잇살이 물결처럼 출렁거렸다. 외삼촌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한쪽 다리를 들더니 방귀를 뽕- 뀌었다. 차마 코로 맡을 수 없는 이상야릇한 냄새를 온 방안에 퍼트리고는 푸실푸실 웃으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외삼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똥 누러 가면서 왜 '아니.'라고 대답하는지 은성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외삼촌의 거짓말에는 목적이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외삼촌의 입은 사실과 반대되는 말만 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 같았다. 어쩌면 진짜 거짓말을 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은성이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된 건지도 모른다.

외삼촌의 직업은 사기꾼이었다. 외삼촌의 지갑에는 수십 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이름은 모두 같았지만, 직업이 달랐다. 공인중개사, 회계사, 변호사, 무슨 무슨 회사의 사장……. 외삼촌의 레이더는 귀 얇은 사람들을 쉽게 찾아냈고, 뱀처럼 날렵한 혀로 달콤한 말을 속삭여 그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냈다.

크고 작은 사기를 수도 없이 쳤지만, 지금 외삼촌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외삼촌 옆에는 한때 친구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는 프로 중의 프로 사기꾼이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합심해서 대형사기를 쳤고, 따뜻하고 먼 나라에 가서 몇 년 쉬었다가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친구는 외삼촌을 데려가지 않았다. 사기 쳐서 번 돈을 혼자 다 가져가기가 미안했던지, 외삼촌의 잘생긴 얼굴을 수배 전단에 올려 외삼촌을 유명 인사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답을 했다.

덕분에 외삼촌은 친구를 잡으러 따뜻하고 먼 나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를 수도, 또 다른 사기를 치러 다닐 수도 없게 되었다. 좁디좁은 월세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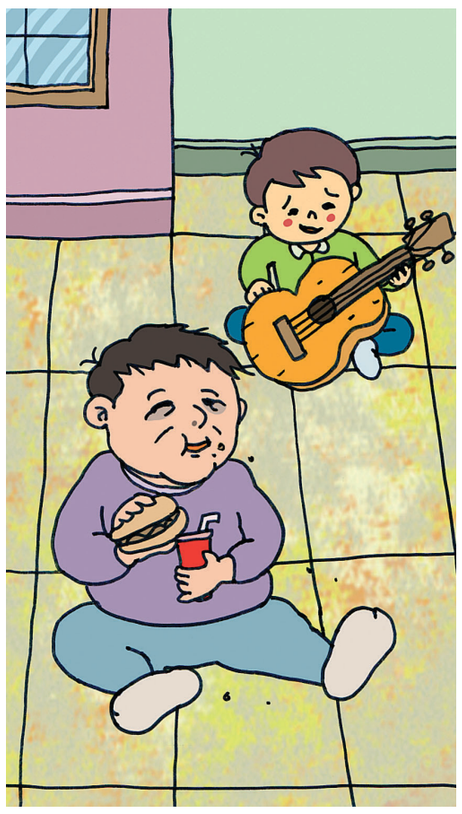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서 끓어오르는 화를 라면 국물로 달래며 포동포동 살을 찌우는 일 말고, 외삼촌이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우쿨렐레를 조율하고 있는데 판다곰이 데굴데굴 은성이 옆으로 굴러왔다.

"어디 가냐?"

"돈 벌러."

외삼촌이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은성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4학년 1학기가 마지막이었다. 거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다.

공부 대신 돈 버는 법을 배웠다. 어린이가 돈을 버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다. 은성이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받을 수도, 식당에서 음식을 나를 수도,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도 열두 살의 은성이에게 일자리를 주려 하지 않았다.

은성이가 처음 했던 일은 공원에서 공병을 줍는 일이었다. 맥주병은 50원, 소주병은 40원. 하루 종일 주워봐야 5천 원을 채 넘기기가 힘들었다. 병을 주우려고 공원을 어슬렁거리다 보면 심부름을 시키는 할아버지들이 있었다. 소주나 담배, 안줏거리를 사다 주고 얼마씩 받았다. 편의점은 멀고, 할아버지들은 바둑을 두느라 바쁘고, 무엇보다 그 나이엔 다들 다리가 아프기 마련이었으니까.

그래도 벌이가 제일 괜찮은 건 노래를 하는 거였다. 방과후 수업에서 배운 우쿨렐레를 연주하며 최백호나 심수봉을 불렀다. 마이크가 없어서 노랫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몇몇씩 모여 은성이의 노래를 들었다.

'이제 와 새삼 이 나이에 실연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 대목에서 은성이의 주특기인 꺾기에 돌입하면 사람들은 피식 웃으며 모금함에 동전 몇 개, 운이 좋으면 색깔이 다양한 지폐를 넣어주었다. 은성이의 나이와 맞지 않는 가사와 창법.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어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은성이는 나이도 어리고, 실연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맛이 달콤한지 씁쓸한지 알 길이 없었지만, 마음이 텅 비어버린 쓸쓸함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다. 짧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은성이는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것들을 지나온 길에 묻어버렸던 것이다.

"돈은 벌어서 뭐 하게?"

어쩜 저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 외삼촌이 능청스럽게 굴 때면 은성이는 판다곰의 머리통이라도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심정이었다.

"외삼촌, 우리 담양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 거기에는 대나무가 많다니까. 판다곰의 먹이로는 아무래도 라면보다는 대나무가 제격이지."

외삼촌은 대답 대신 끄어억 하고 신트림을 올렸다.

"너 엄마 안 보고 싶냐?"

은성이는 우쿨렐레를 조율하던 손을 멈췄다.

은성이가 새 아빠와 싸웠던 날, 무지막지한 주먹이 은성이의 얼굴을 후려쳤던 날, 씩씩거리며 달려온 외삼촌이 은성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갔던 날, 맨발로 달려 나와 은성이의 주머니에 만 원짜리 몇 장을 넣어주며 더러운 손바닥으로 뺨에 흐른 눈물자국을 쓸던 모습, 그것이 은성이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은성이는 우쿨렐레를 들쳐 메고 현관으로 나섰다. 바닥에 누워 열심히 콧구멍을 후비고 있는 판다곰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에게는 엄마가 없어."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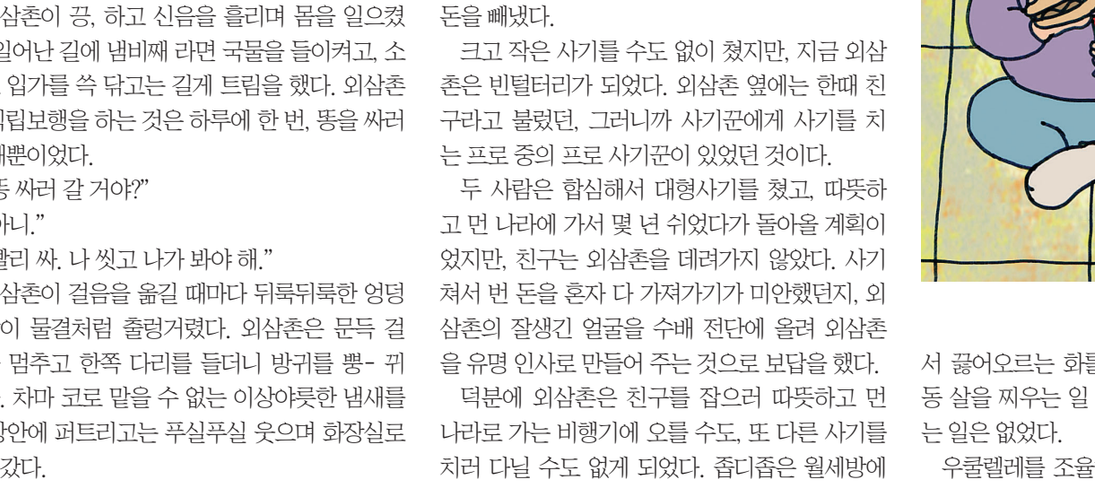
문화재기능인 등록 제 5772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을 검색하시면
보리수 공방으로 연결되고, 보리수 공방의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뜨시고 따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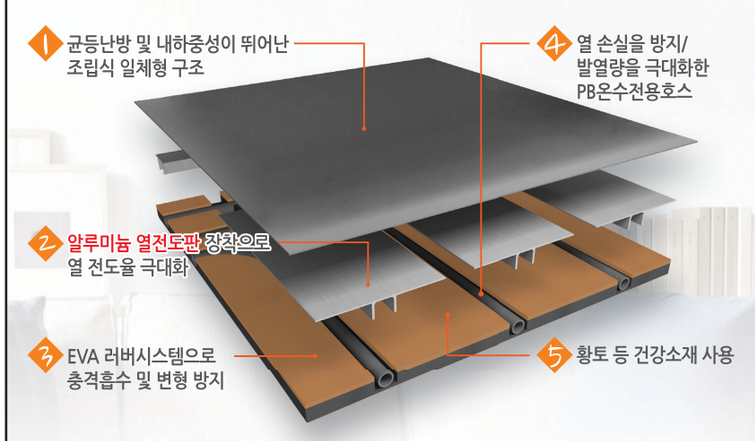
스님, 불자님 이제 연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조달청등록기업
MBC, KBS 방송광고제품

난방비 50% 이상 절감 / 반영구적 수명
내하중성 최고 / 전자파 ZERO



태경에너지 홍보이사 / 배우 이동준



1 균등난방 및 내하중성이 뛰어난 조립식 일체형 구조
2 알루미늄 열전도판 장착으로 열 전도율 극대화
3 EVA 러버시스템으로 충격흡수 및 변형 방지
4 열 손실을 방지/발열량을 극대화한 PB온수전용호스
5 황토 등 건강소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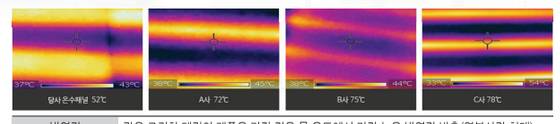
01 황토발포단열 EVA 사용
02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56%,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03 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열식 온수난방패널 (특허 10-1386923호)
04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05 난방비 50% 이상 절감 (45℃ 이하의 저온수 난방 제품)

열과 하중에 강한 태경에너지 온수난방패널 핵심기술

열을 넓게 퍼트리는 3면 알루미늄

발열량을 높이는 PB온수전용호스

원적외선 방출 및 항균효과가 있는 황토EVA



발열량	같은 조건하 태경의 제품은 가장 적은 물 온도에서 가장 높은 발열량 방출(열복사량 최대)
열전도율	알루미늄이 장착된 태경의 제품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가장 높은 열 전도율을 보여줌

금새 따뜻해지는 놀라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제품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태경에너지 TAEKYUNG 온수온돌판넬 전문기업

대리점 및 제품구입문의 1833-8404 www.태경에너지.kr

가스, 전기, 기름보일러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